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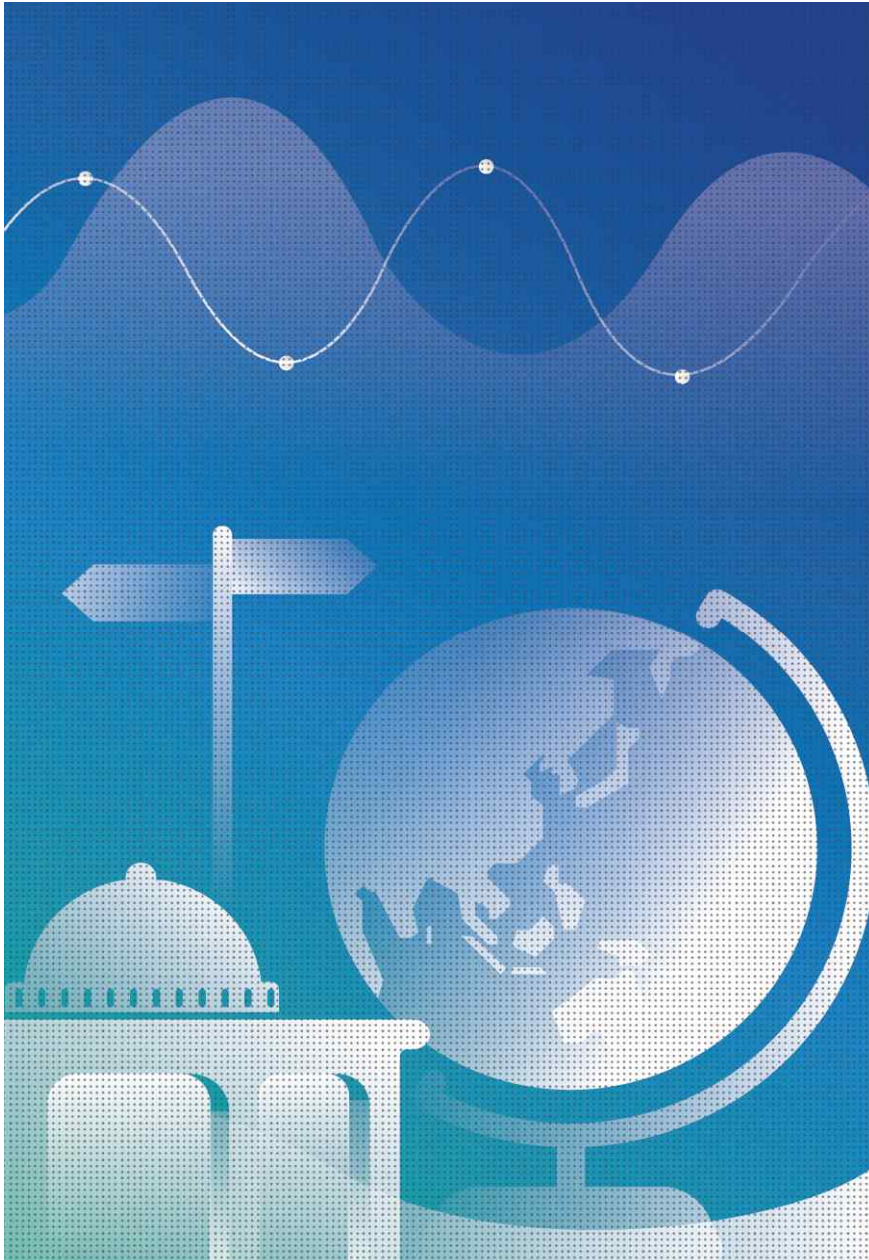
2021 ISSUE REPORT

#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1-지역이슈-16(2021.12)

EAEU 통합 확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CONTENTS

I. EAEU의 성립과 발전

II. EAEU 통합 추진 및 역내 경제협력 강화

III. EAEU의 대외 경제협력 확대

IV.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2-3603)

ykj@korea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 약>

### 1. EAEU의 성립과 발전

- **(추진 배경)** 1994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된 EAEU는 구소련 지역에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설립, 세계경제의 변동에 대처하고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을 추진함.
- **(설립 및 발전)** 2010년 관세동맹 출범, 2012년 단일 경제공간 출범으로 지역 경제협력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출범하였음.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으로 시작되어 키르기즈, 아르메니아가 추가로 가입하며 현재의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음. 이후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쿠바가 옵저버국으로 가입함.

### 2. EAEU 통합 추진 및 역내 경제협력 강화

- **(통합 추진)** 점진적으로 역내 관세를 전면 폐지코자 하며, 역외에 대해서는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025년까지의 EAEU 경제통합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전력,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시장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회원국들의 출자로 출범한 '유라시아개발은행'과 '유라시아안정화펀드'가 유라시아 국가 간 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역내 경제협력 강화)** 회원국들 간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역내 교역의 비중은 2015년 13.6%에서 2020년 14.8%로 상승하였음. 역내 상호 투자액도 2016년 205억 달러에서 2020년 254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3. EAEU의 대외 경제협력 확대

- **(역외국과 무역협정 추진)** 2015년 베트남과의 FTA 체결 후 이란, 중국, 싱가포르, 세르비아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도 논의되고 있음.
- **(동북아 국가들과의 교역 증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EU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비중은 2015년 13.6%에서 2020년 20.2%로 상승하였음.

###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FTA 체결 및 경제협력 확대)** 우리나라는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교역 및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역내 생산품에 대해 회원국 간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활용하여 회원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EAEU 통합인증 획득)** 우리나라 상품의 EA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EAEU 통합인증제도에 따라 한국 기업의 생산품을 인증받을 필요가 있음.
- **(EAEU와의 운송협력)** EAEU 지역의 운송망 구축과 물류 시스템 통합에 따라 이 지역과 안정적인 물류망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카스피해 지역과의 물류를 확대할 수 있음.



## I. EAEU의 성립과 발전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의 성립

- (추진 계기) 구소련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블록 설립 추진은 1994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음.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2014년 3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특강에서 유라시아 지역 경제블록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였음.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통합체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유라시아 국가들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세계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라시아 경제 통합을 주장하였음.
- 이후 이 연설문을 토대로 작성된 '유라시아 국가연합 형성 프로젝트'가 CIS 회원국 정상들에게 전달되고, 2014년 6월 러시아 일간지에 게재된 이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주도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음.<sup>1)</sup> 이후 구소련의 유라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협력체를 설립하여 경제통합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됨.
- (설립 목적) EAEU는 구소련 국가들 간에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참여국들의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EU와 같은 형태의 단일한 정치·경제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으로 유라시아 지역협력체의 출범은 2009년 5월 EU가 구소련 6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기 시작한 '동방 동반자관계 프로그램(EPP, Eastern Partnership Program)'에 대응하는 의미가 있음.<sup>2)</sup>
- (EAEU 현황) EAEU는 세계 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세계 면적의 13.6%에 해당하는 넓은 영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농업 생산에서도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EAEU는 세계 경제(GDP 규모)의 2.0%, 세계 무역의 1.8%(수출의 2.1%, 수입의 1.5%)를 각각 점유하고 있음. 특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높아 2019년 기준 세계 원유 생산의 14.5%, 가스 생산의 20.2%, 석탄 생산의 6.5%를 점유하고 있음. 아울러 농업 생산의 비중도 높아 2018년 기준 세계 밀 생산의 12.1%, 감자 생산의 9.2%를 점유하고 있음.<sup>3)</sup>
- EAEU 내 회원국별 경제규모는 2020년 GDP 기준으로 러시아가 85.4%, 카자흐스탄이 9.9%, 벨라루스가 3.5%, 아르메니아가 0.7%, 키르기즈가 0.4%의 비중을 각각 점유하여 국가들 간의 경제규모에 매우 큰 차이가 있음.

1) 이창수 외(202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28.

2) EU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개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이며, 러시아는 이러한 EU의 정책이 이 국가들에 대한 EU의 영향력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음.

3) EEC(2021). *Facts and figures 2020*. p. 3.



## EAEU의 발전 과정 : 현재 5개 정회원국, 3개 옵저버 회원국으로 구성

- 2014년 5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EAEU 창설 조약에 서명하고, 3개국 의회 비준을 거쳐 2015년 1월 1일 3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공식 출범하였음. 출범 다음날인 동년 1월 2일 아르메니아, 8월 12일 키르기즈가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5개 회원국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7년 4월에는 몰도바가 옵저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20년 12월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쿠바도 옵저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표 1] EAEU 추진 일지

일 자	내 용	특 징
1994.3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지역블록 설립 제안(모스크바)	
1995.1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Customs Union) 협정 서명	
1999.2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 관세동맹 및 단일 경제공간(CES, Common Economic Space) 조약 서명(모스크바)	
2000.10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즈 간 관세동맹과 단일 경제공간 형성 촉진을 위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설립 조약 서명(아스타나)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출범 (EAEU 출범 전까지 활동)
2003.9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간에 단일 경제공간(CES) 설립 협정 서명(알타)	
2010.1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간 관세동맹 출범: 공동관세 부과, 관세규정 제정, 국경지역의 세관 통제 해제 등의 조치 실행	관세동맹(Customs Union) 출범
2011.11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간에 2015년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추진,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상설기구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설립 조약 체결	
2012.1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간 CES 조약 발효(2010.12월 서명)	단일 경제공간(CES) 출범
2012.2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설립	
2015.1.1.	EAEU,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개국에서 발효(2014.5월 서명)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
2015.1.2.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 발효 (2014.10.10.자 서명)	
2015.8.12.	키르기즈의 EAEU 가입 발효 (2014.12.23.자 서명)	
2017.4.14.	몰도바 옵저버 가입	
2020.12.11.	우즈베키스탄, 쿠바 옵저버 가입	

자료: EAEU 홈페이지 등 참고

-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단일 경제공간(Common Economic Space)을 거쳐 EAEU의 출범으로 성과를 거둠.
- 1995년 1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의 관세동맹 협정 서명과 1999년 2월의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의 관세동맹 및 단일 경제공간 조약 서명으로 역내 관세 폐지와 공동의 상품·서비스·자본·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이후 2000년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정상들이 관세동맹과 단일 경제공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설립 조약'에 서명함.



- (관세동맹) 2010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간 관세동맹 체결을 통해 공동관세가 부과되고, 3개국 간의 국경 지역에서 세관통제가 해제됨.
- (단일 경제공간) 2012년 단일 경제공간에 관한 조약이 발효되어 상품 이외에 서비스·자본·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완성됨.
- (EAEU) 2014년 5월 29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정상은 EAEU 창설 조약에 서명하였고, 2015년 1월 1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에서 동 조약이 발효되었음. 2015년에 아르메니아(1월)와 키르기즈(8월)가 가입하였으며, 이후 2018년 4월 몰도바, 2020년 12월 우즈베키스탄과 쿠바가 옵저버로 가입하여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EAEU는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정상회의인 '최고 유라시아 경제이사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그리고 회원국 총리들로 구성되는 '유라시아 정부 간 이사회(Eurasian Intergovernmental Council)'를 운영하고 있음.
- EAEU 내의 모든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가 있으며, EEC는 통합 및 거시경제, 경제 및 금융정책, 공업 및 농업 등 9개의 장관급 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이외에 회원국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EAEU 법원(Court of Eurasian Economic Union)도 운영되고 있음.

## EAEU 역내 금융기구의 운영

- 역내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EAEU의 통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역내 금융기구로 개발금융기관인 유라시아개발은행(EDB, Eurasian Development Bank)과 역내 회원국들의 경제안정을 위한 유라시아 안정화펀드(EFSD, Eurasian Fund for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가 운영되고 있음.
- (EDB의 설립과 활동)<sup>4)</sup> 2006년 1월 12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정장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금융·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유라시아개발은행 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이에 따라 70억 달러 규모의 정관자본금(납입자본금 15억 달러, 최고자본금 55억 달러)으로 EDB가 설립되어 참여국들의 프로젝트 지원, 각국 정부의 재정안정 지원 등과 함께 EAEU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주도로 설립된 EDB는 이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그리고 EAEU 비회원국인 타지키스탄이 가입하여 현재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 누르술탄(카자흐스탄), 비슈케크(키르기즈), 두산베(타지키스탄), 민스크(벨라루스), 예레반(아르메니아)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음.
- EDB는 2021년 10월 기준 회원국들의 85개 프로젝트에 45.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주요 투자 부문은 운송, 발전, 광물 등이며, 부문별 투자액 비중은 운송 24.8%, 발전 17.1%, 금융 17.0%, 화학 11.9%, 기계제작 10.1%, 농업 1.7% 등임.

4) <https://eabr.org> (유라시아개발은행 사이트)



- (EFSD의 설립과 활동)<sup>5)</sup> EFSD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러시아, 타지키스탄이 자본금 85.13억 달러(러시아 75억 달러, 카자흐스탄 10억 달러, 벨라루스 1,000만 달러, 아르메니아·키르기즈·타지키스탄이 각각 100만 달러)를 조성하였으며, EDB에서 운영을 맡고 있음.
- EFSD는 2009년 6월 회원국에 대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에는 각국의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이외에 교육, 보건, 사회보장, 식량안보 등 사회 부문에 대한 지원과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증진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음.

---

5) <https://efsd.eabr.org> (유라시아 안정화 펀드 사이트)





## II. EAEU 통합 추진 및 역내 경제협력 강화

### EAEU 역내 시장 통합의 추진

- EAEU는 2015년부터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노동, 자본의 단일시장 창설과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역내 시장의 장벽이 제거되고 있음.
- 이를 통해 5개 회원국 간 상품교역에서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되고, 역외교역에 대해서는 단일 관세율이 적용됨.<sup>6)</sup> 서비스 시장에서는 2019년 말 기준으로 53개 부문에서 전체 서비스의 57%에 대해 단일 시장이 형성되었음.
- 역내 무역·투자 장벽이 제거되고 있으며, EEC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역, 광고, 공공조달 등의 부문에서 51개의 장벽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sup>7)</sup>
- EAEU는 2025년까지 은행·보험·증권시장 등 금융 서비스 시장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력 서비스 시장,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시장의 통합, 운송서비스 시장 통합, 디지털 시장 형성 등도 추진되고 있음.

[표 2] EAEU 시장 통합 일지

통합 추진기구	통합 내용	연도	특 징
관세동맹	공동 관세율, 세관행정 및 통관업무 통합	2010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내의 단일 상품시장	2011	3국 간 교역에서 통관절차 폐지
단일 경제공간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 추진	2012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 단일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시장 추진	2015	
	EAEU 공동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2018	2025년까지 의약품·의료기기 생산·등록 시장의 완전한 통합 목표
	EAEU 관세법 조약 발효	2018	
	EAEU 공동 전력 서비스 시장	2019	
	EAEU 간접세(주류, 담배) 단일 시장	2019	2024년부터 단일 세제(1리터 알콜에 대해 9유로 등) 도입 목표
	EAEU 공동 금융서비스 시장	2025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EAEU 공동 운송서비스 시장	2025	2018~20 공동 운송정책 실행 로드맵 추진
	EAEU 공동 가스 시장	2025	
	EAEU 공동 석유 및 석유제품 시장	2025	
	EAEU 디지털 어젠다 실행	2025	디지털 교역, 디지털 교통망, 디지털 산업협력, 디지털 자료 이동 등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2019), *Facts and Figures* 등 참고 작성

6) 관세동맹에 참여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간에는 2010년부터 역내 관세 폐지가 추진되어 왔음.

7) <https://eec.eaeunion.org> 2021.5.21.



- EAEU의 실무기구인 EEC는 매년 EAEU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기적 차원의 경제협력도 추진하고 있음.
- EEC는 2021년 5월 2021~22년 EAEU 기본 경제정책을 승인하였는데, 동 정책에는 거시경제 안정 및 기업 활동 활성화, 투자 확대, 제조업 부문의 생산협력, 과학기술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
-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공동 투자 프로젝트 추진, 역내 회원국 간의 금융지원 체계 및 공동 생산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EAEU 2025 통합 전략의 수립 및 추진

- EAEU는 2020년 12월 개최된 '최고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에서 '2025년까지의 유라시아 경제통합 전략'을 승인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2025년까지의 유라시아 경제통합 전략'은 역내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서의 장벽 제거, 혁신기술 발전 협력 등 11개 항목에 대한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 통합 방안은 EAEU 회원국의 식량 안보, 역내 금융 서비스 지원, 회원국 공동의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회원국 주민의 보건 및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표 3] 2025년까지의 유라시아 경제통합 전략(11개 주요 항목)

1	상품 및 서비스, 자본, 노동 이동에서의 장벽 제거 및 예외 조항 축소
2	상품 시장의 효율성 향상
3	관세 규정 완성
4	역내 상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보장, 소비자 권리 보호
5	디지털 공간 형성, 디지털 인프라 발전
6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 도입
7	공동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수출 지향 산업 등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산업부문 발전
8	공동 과학기술 연구 지원
9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EAEU 내의 효율적인 제도 구축
10	교육, 보건, 관광, 스포츠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
11	세계 발전을 위한 주요한 기구로서 EAEU의 역할 수행

자료: EEC(2021). Facts and figures 2020. pp. 9~10.

### 역내 투자 협력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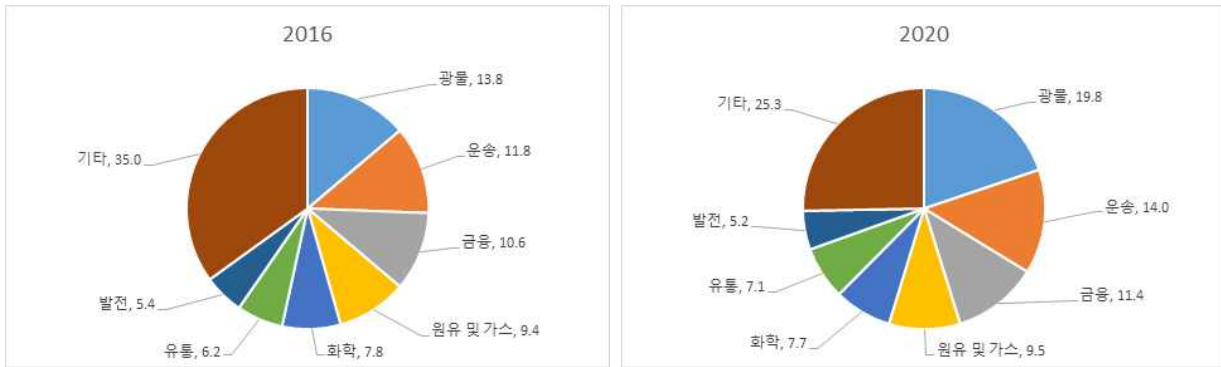
- EAEU 회원국들 간의 상호 투자액은 2016년 205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254억 달러로 24% 증가하였으며, 역내 상호투자는 주로 광물, 운송 등의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역내 최대 상호 투자 부문은 광물(전체 투자의 19.8%)이며, 운송(14.0%), 금융(11.4%), 원유 및 가스(9.5%) 등도 주요 투자 부문임.





- 2016년과 비교하여 2020년에는 광물 부문 투자가 22억 달러, 운송 부문 투자가 12억 달러, 금융 부문 투자가 7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2016년과 비교한 2020년의 투자 비중도 광물은 13.8%에서 19.8%, 운송은 11.8%에서 14.0%로, 금융은 10.6%에서 11.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EAEU의 역내 상호 투자 부문별 비중(%)



자료: EDB

- 회원국별로는 2020년 기준 러시아의 투자액이 역내 상호 투자액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어 카자흐스탄의 투자액이 18.8%를 점유하고 있음. 러시아의 역내 투자는 대부분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 집중되어 있음.
- 2020년 기준 역내로부터의 상호투자 유입액은 카자흐스탄이 3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러시아(29.3%), 벨라루스(27.8%)의 순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EAEU 전체 FDI 유입액 대비 역내 국가들간의 투자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2016년의 경우 역내 투자액 비중이 전체 투자유입액의 3.0%에 불과했으며, 2020년에도 2.2%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역내 국가들의 상호 투자(2016년 말 기준 누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회원국별 투자유입액					회원국의 역내 투자액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투자국	러시아	-	4,260.9	10,586.6	1,932.5	0	16,780.00
	카자흐스탄	1,421.0	-	38.9	-	0	1,459.90
	벨라루스	455.8	23.7	-	0.2	0	479.7
	아르메니아	446.4	1.1	8.0	-	0	455.5
	키르기즈	83.87	20.1	1.1	0	-	105.07
회원국에 대한 투자유입액		2,407.0	4,305.9	10,634.6	1,932.7	0	19,280.17
전체 FDI 유입액		461,710.0	156,619.6	18,650.0	4,634.8	5,345.5	646,959.90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2017), pp. 21~22.



[표 5] 역내 국가들의 상호 투자(2020년 말 기준 누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회원국별 투자유입액					회원국의 역내 투자액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투자국	러시아	-	5,261.5	4,497.4	1,686.5	0	11,445.40
	카자흐스탄	3,039.6	-	32.5	-	0	3,072.10
	벨라루스	1,028.5	51.9	-	0.2	0	1,080.60
	아르메니아	584.4	1.3	11.9	-	0	597.6
	키르기즈	144.7	27.1	1.9	0	-	173.7
회원국에 대한 투자유입액	4,797.2	5,341.8	4,543.8	1,686.7	0	16,369.50	
전체 FDI 유입액	539,743.4	166,406.6	14,543.8	5,217.7	5,177.3	731,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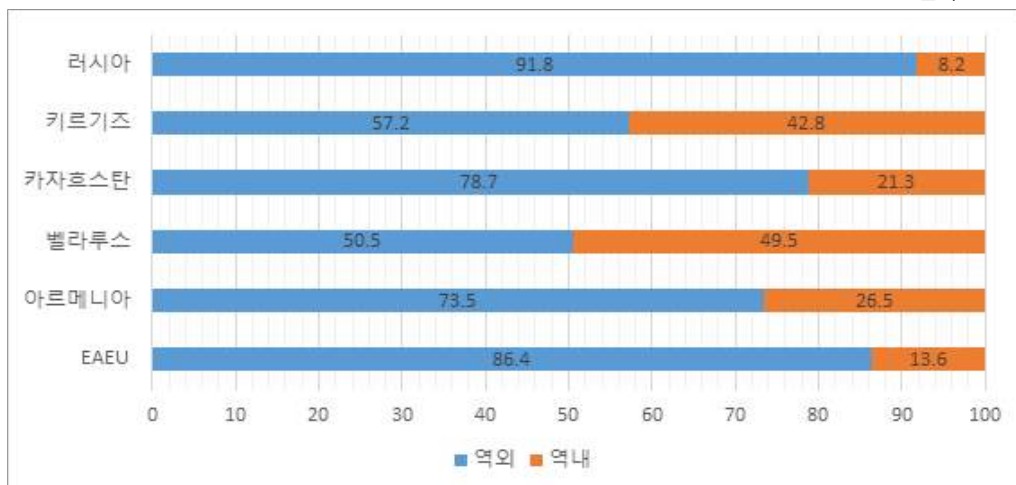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2017), pp. 21~22.

### 역내교역 비중은 증가 추세

- EAEU 회원국들의 교역에서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3.6%에서 2020년에는 14.8%로 증가하였는데,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에서 역내교역 비중이 상승하였으며, 벨라루스는 기존의 비중이 유지되었음.
- EAEU 회원국들의 수출에서 역내수출 비중은 2015년 10.9%에서 2020년에는 13.1%로 증가하였음. 5개 회원국 모두 각국의 수출에서 점유하는 역내수출 비중이 상승하였으며, 경제규모가 비교적 작은 벨라루스, 키르기즈, 아르메니아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음. 한편, 역내에서 경제규모가 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10.1%, 13.1%를 각각 기록하였음.
- EAEU 회원국들의 수입에서 역내수입 비중은 2015년 18.2%, 2020년 17.3%를 기록하였음. 기존에 가장 비중이 높았던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역내수입 비중이 상승하였음.

[그림 2] EAEU 국가들의 역내/외 교역 비중(201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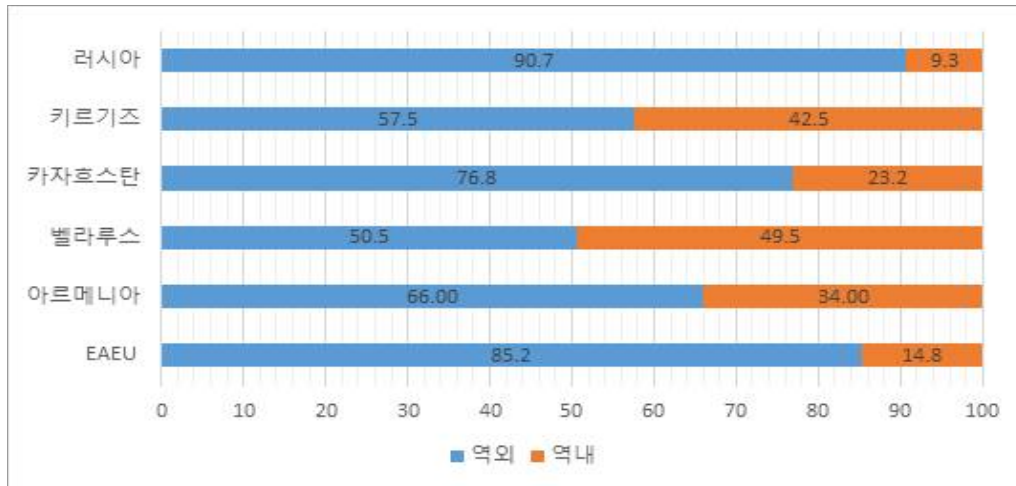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2016), p.320.



[그림 3] EAEU 국가들의 역내외 교역 비중(2020년)

단위: %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2016), p. 152.

[표 6] EAEU 개별 회원국의 전체 교역에서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역내수출 비중

국가	2015	2020
EAEU	10.9%	13.1%
아르메니아	17.3%	28.0%
벨라루스	41.3%	48.0%
카자흐스탄	11.1%	11.9%
키르기즈	27.6%	28.1%
러시아	8.4%	10.1%

역내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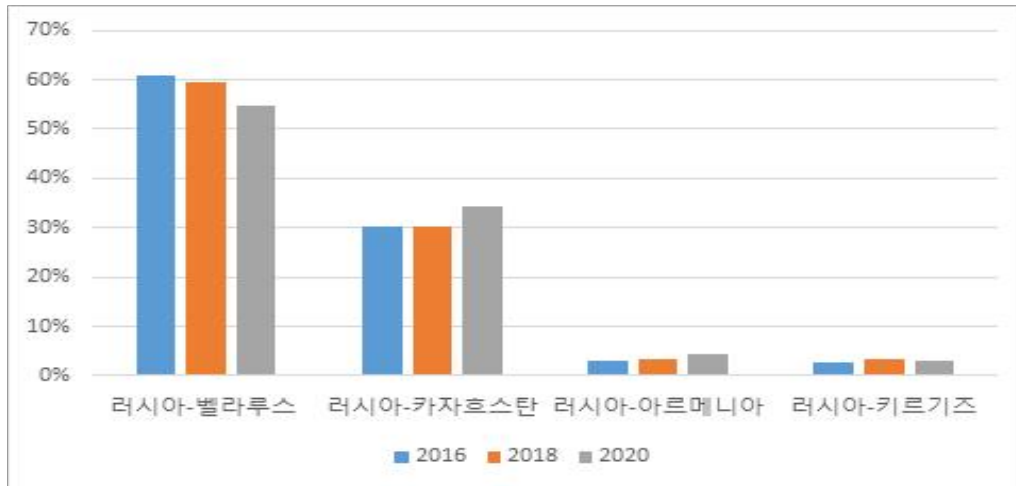
국가	2015	2020
EAEU	18.2%	17.3%
아르메니아	30.8%	37.6%
벨라루스	56.8%	50.8%
카자흐스탄	36.7%	37.8%
키르기즈	49.7%	50.7%
러시아	7.8%	8.2%

자료: EAEU

- EAEU 역내교역에서 차지하는 국가 간 교역 비중은 2020년 기준 러시아-벨라루스 간의 교역이 54.8%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러시아-카자흐스탄 간의 교역이 34.5%를 차지함. 다만, 러시아-벨라루스 간 교역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러시아-카자흐스탄 간 교역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임.
- 2020년 기준 회원국들의 교역에서 역내교역의 비중은 벨라루스가 가장 높은 50.5%를 기록했으며, 러시아는 가장 낮은 9.3%를 기록함. 즉, 벨라루스의 역내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은 반면, 러시아의 역내 경제의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벨라루스의 역내 수출비중은 2015년 41.3%에서 2020년 48.0%로 상승하였으며, 반면 역내 수입 비중은 2015년 56.8%에서 2020년 50.8%로 하락함.



[그림 4] EAEU 역내 국가별 교역 비중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2021), p.150.



### Ⅲ. EAEU의 대외 경제협력 확대

#### 역외국들과 FTA를 비롯한 무역협정 체결 추진

- EAEU는 역외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한 대외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가장 먼저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5월 서명되어 2016년 10월 발효되었으며, 이후 이란, 중국, 싱가포르, 세르비아와 협정이 체결되었음.
- EAEU와 이란 간에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관한 임시협정<sup>8)</sup>'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에서 관세 인하 조치가 시행됨. 이란은 EAEU에서 수입되는 36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 EAEU는 이란으로부터 수입되는 50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였음.<sup>9)</sup>
- 중국과 체결된 무역·경제협정은 기술 규제, 통관 절차, 경쟁,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관세 인하 규정은 채택하고 있지 않음.<sup>10)</sup>
- 이외에 한국, 이집트, 몽골, 이스라엘, 인도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음.

[표 7] EAEU의 FTA 체결 및 협상 현황(2021.11월)

대상국	체결	발효	특징
베트남	2015년 5월	2016년 10월	자유무역협정
이란	2018년 8월	2019년 10월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관한 임시협정
중국	2018년 5월	2019년 10월	경제·무역협정
싱가포르	2019년 10월	미발효	자유무역협정
세르비아	2019년 10월	2021년 7월	자유무역협정

자료: EAEU

- EAEU의 상설조정기구인 EEC(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20년 8월 기준 방글라데시, 그리스, 요르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14개 국가들과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여러 세계 지역 경제협력체들과도 38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EEC는 아세안(ASEAN)과 2018년 11월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9~20년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협력 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음.
- 또한 EEC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및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경제위원회(SELA) 등과도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8) WTO 회원국이 아닌 이란과는 임시협정이 체결됨.

9) EEC(2021), *Figures and highlights 2020 Trade*. pp. 3~4.

10) EAEU(2019), *5 years The EAEU Anniversary*. pp. 88~89. 중국은 EAEU의 최대 교역국가로 이미 다수의 중국 상품들이 EAEU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 인하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EAEU 회원국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EAEU 대외교역 구성의 변동

- EAEU의 대외교역에서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EU 국가들의 비중이 감소하고,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EAEU의 3대 EU 교역국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와의 교역 비중은 2015년 24.6%에서 2020년에는 17.5%로 하락한 반면, 한국·중국·일본 3개국과의 교역 비중은 2015년 21%에서 2020년에는 27%로 상승하였음. 이는 EAEU와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2015년 13.6%에서 2020년에 20.2%로 크게 상승하고, 한국과의 교역 비중도 2015년 3.4%에서 2020년 4.1%로 상승한 데 따른 것임.
- 이외에 EAEU의 중동 지역 최대 교역국인 UAE와의 교역 비중도 2015년 2.7%에서 2020년에는 4.8%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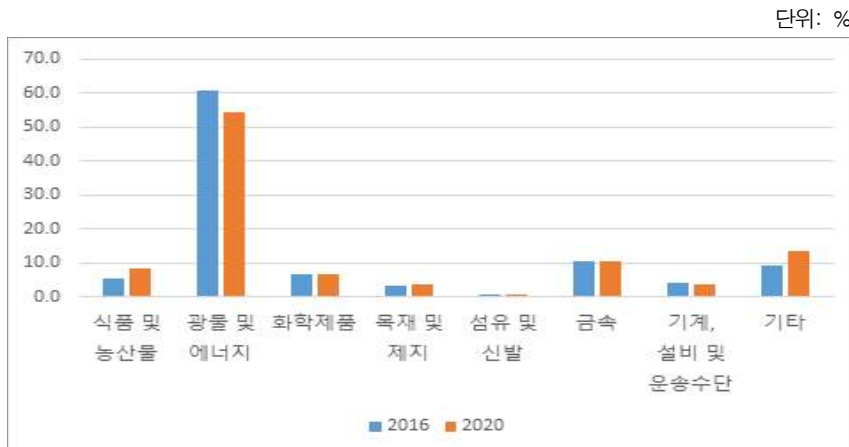
[표 8] EAEU의 교역에서 주요 역외국들의 비중

국가	2015	2020
중국	13.6%	20.2%
독일	8.8%	7.5%
네덜란드	8.7%	5.3%
UAE	2.7%	4.8%
이탈리아	7.1%	4.6%
미국	4.1%	4.3%
한국	3.4%	4.1%
터키	4.6%	4.0%
일본	4.0%	2.8%
폴란드	2.9%	2.8%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2016; 2021).

- 2020년 기준 EAEU의 역외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광물 및 에너지로 50% 이상을 점유하였음. 다만, 2016년과 비교하여 2020년에는 광물 및 에너지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식품 및 농산물, 목재 및 제지 등의 수출 비중이 다소 상승하였음.

[그림 5] EAEU 회원국의 역외 수출품목 비중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2021), p.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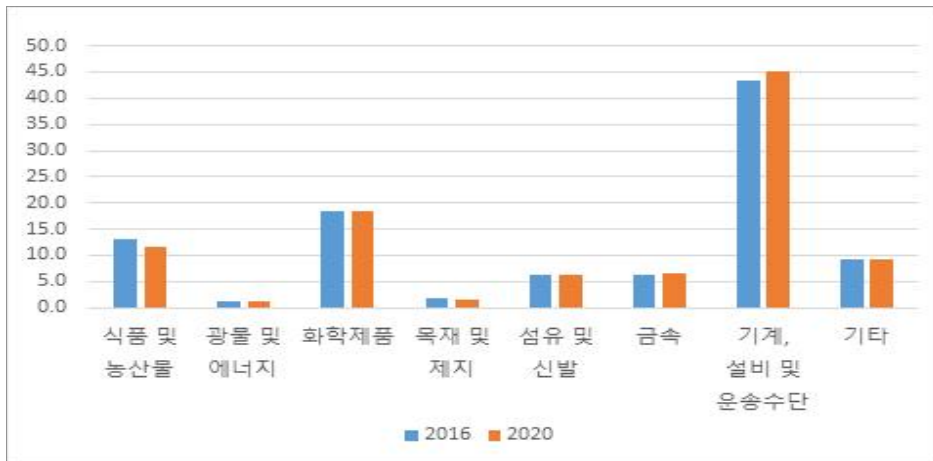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EAEU의 역외 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기계·설비 및 운송수단으로 45%를 점유하였으며, 다음으로 화학제품과 식품 및 농산물, 섬유 및 신발의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6] EAEU 회원국의 역외 수입품목 비중

단위: %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2021), p.148.



## IV.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EAEU와의 교역 및 투자 협력 강화와 FTA 체결 추진 필요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품교역에서 EAEU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208.3억 달러)로, 수출의 1.76%(90.4억 달러) 및 수입의 2.53%(117.9억 달러)에 그치고 있음. 이는 그만큼 EAEU 지역이 상당수의 우리 기업들에게 여전히 미답의 시장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EAEU와의 교역 규모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EAEU의 주요 수입품목인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 제품들의 수출 증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9] 2020년 한-EAEU 간 상품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수출액	수입액	총교역액
러시아	6,900	10,630	17,530
카자흐스탄	1,998	1,090	3,088
벨로루스	55	41	96
키르기즈	74	0.5	75
아르메니아	17	27	44
<b>총 합계</b>	<b>9,044</b>	<b>11,789</b>	<b>20,833</b>

자료: 한국무역협회

- 아울러 우리나라의 EAEU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2020년 6월 말 누적액 기준 57.4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의 2.34%에 불과하여, 향후 우리나라와 EAEU 간의 투자협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이 지역 국가들의 주요 산업이며 향후에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 및 광물, 제조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표 10] 우리나라의 대 EAEU 직접투자(2020년 6월 기준 누적)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우리나라의 투자액
러시아	2,956
카자흐스탄	2,669
벨라루스	14
키르기즈	102
아르메니아	3
전체	5,74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우리나라는 EA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AEU 역내국 간에는 교역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EAEU의 특정 회원국에 투자하여 생산한 제품은 다른 EAEU 회원국들에 무관세로 수출됨. 이를 고려하여 각 회원국에 적합한 제조업 분야의 투자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와 EAEU는 2015년 11월 FTA 체결 논의를 시작하여 2018년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모두 5차례에 걸쳐 공식회담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협상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음.

## EAEU 통합 인증제 및 기술 규제에 대한 대응

- 한국 제품의 EAEU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서는 EAEU 역내 인증제도(EAC, Eurasian Conformity)에 따른 제품 인증 획득이 긴요함. 아울러 EAEU의 기술규제에 대응하여 한-EAEU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EAEU 역내의 인증제도가 전자제품, 가구, 경공업 제품, 기계 및 설비 제품 등에 대한 분야로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지 인증제도에 적합한 제품 생산과 인증 획득을 통해 EAEU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EAEU는 2021년 6월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도입하고, 2022년 7월 자동차 안전규제, 2022년 9월 전기·전자 제품의 에너지 효율 조건(On requirements for energy efficiency of power consuming devices) 도입 등 무역기술장벽(TBT)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함.<sup>11)</sup>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20년 9월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개최, EAEU의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기술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음.
- EAEU는 2020년 이후 아제르바이잔 및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 중국산 자동차 휠 및 고강도강관, 스테인레스 주방용품 등 20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중국산 트럭 타이어와 멜라닌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sup>12)</sup>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향후 EAEU와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EAEU 디지털 통합망 구축에 대한 대응 필요

- EAEU는 'EAEU 2025 Digital Agenda'를 통해 2025년까지 역내 디지털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협력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sup>13)</sup>

11) <http://www.eurasiancommission.org> 2021.2.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 강화」. 2021년 7월 1일.

12) 2020년 9월 기준으로 13개의 철강 제품, 4개의 자동차 및 기계제품, 2개의 화학제품, 1개의 소비재에 대해 무역규제 조치가 취해졌으며, 10개의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EEC(2021), *Figures and highlights 2020 Trade*. p. 16.

13) "The EAEU 2025 Digital Agenda: Prospects and Recommendations" <https://roscongress.org> 2018.9.24.



- 2025년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EAEU 차원의 디지털 통합시스템 구축, 디지털 산업 발전, 디지털 부문 일자리 창출, 디지털 부문의 대외협력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한 EAEU 통합 디지털 구축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EAEU 관련부서와의 협력 추진이 요구됨.

## EAEU 국가들과의 운송 협력 추진 필요성

- EAEU 경제통합을 통해 운송망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으며, EAEU 지역을 통과하는 국제운송로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운송환경의 개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EAEU 역내 철도운송에 대한 단일 운임제도 도입, 역내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한 '통합운송물류회사(United Transport and Logistics Company - The Eurasian Rail Alliance (UTLC ERA)' 설립, 디지털 물류 시스템 도입 등으로 역내 물류서비스가 통합되고, 역내외 연계 운송망 서비스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sup>14)</sup>
- 기존에 운송환경이 열악한 유라시아 내륙 지역에 ADB의 CAREC,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철도·도로가 건설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주변 국가들을 연결하는 운송망이 현대화되거나 새롭게 구축되고 있음.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통해 동북아시아와 카스피해 지역, EU, 중동으로 연결되는 물류망 구축을 위한 협력도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추진되고 있음.
- 우리기업들은 이처럼 점차 통합되고 현대화되는 EAEU 지역의 운송망과 연계된 물류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이 지역과의 교역이나 중동, 유럽, 코카서스 지역 등으로 향하는 화물운송에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7] EAEU 역내외 연계 물류망



자료: Eurasian Economic Union

14) EEC(2021), *Figures and highlights 2020 Trade*. p. 10.



< 참 고 문 헌 >

이창수 외(202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 강화」. 2021년 7월 1일.

EAEU(2019). *5 years The EAEU Anniversary*.

EEC(2020). *Facts and figures 2019*.

EEC(2021). *Facts and figures 2020*.

EEC(2021). *Figures and highlights 2020. Trade*.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유라시아경제위원회)(2021).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 В ЦИФРАХ*.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유라시아경제위원회)(2021). *Аналитический обзор*.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유라시아경제위원회)(2021). *Цифры и факты 2020*.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유라시아경제위원회)(2017). *Цифры и факты 2016*.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유라시아경제위원회)(2016). *Цифры и факты 2015*.

<https://eabr.org> (유라시아개발은행 사이트)

<https://efsd.eabr.org> (유라시아 안정화 펀드 사이트)

<http://www.eurasiancommission.org>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사이트)

<https://eec.eaeunion.org> 2021.5.21.

한국무역협회

<https://roscongress.org> 2018.9.24.